

2018년 2월 5일 (월) 도시와 미술연구소 제9회 연구회

발표개요

김시습의 자화상연구 —시와 그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미화

김시습(1435-1493)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학자이다. 3세 때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5세 때 이미 그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당시의 국왕인 세종이 궁으로 불러서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유년기의 재능에 대한 일화가 이 밖에도 여럿이다. 그는 문자능력 및 구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김시습은 15세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곧 재취했다. 자신은 18세때 결혼을 했지만 순탄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상처를 입었다. 조선은 계유정난을 시작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또한 유년기의 천재성과 이로 인한 주변의 칭찬이 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1458년, 24세의 김시습은 승려의 모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평생의 방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방랑의 생활 속에서 많은 시를 남겼고 소설(금오신화)도 썼다. 그는 2편의 자화상도 남겼다.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김시습 말년에 머물렀던 부여 무량사에 그의 초상화가 남아있다. 김시습 사후(1583)에 문집이 편찬되는데 판각을 한 초상화와 자신을 기린 글(自讚)이 있다. 그의 초상화는 여러 개가 전해져 오는데, 여기서는 ①무량사 초상화, ②문집에 실린 판각화, ③일본 천리대 소장본 초상화와, ④경주 기림사에 있는 초상화를 소개하여 의미를 살핀다.

조선에서 쓰인 초상화는 영정의 기능을 했다. 무량사에 있는 초상화도 마찬가지로인데 단순하고 우아한 멋이 있는 반신상이다. 일본 천리대 본은 이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며 경주 기림사에 있는 초상화는 신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판각화는 그의 자찬과 함께 있는데 날카로운 김시습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

드높은 자의식을 가진 김시습은 일생을 여러 양극단 사이의 방향으로 보냈다. 그 중 하나는 자부심과 자조 사이에서 일어났다. 또한 그는 천재적 면모, 조선전기 정치사건에 대처하는 자세(義), 여러 학문에 열려있었던 태도(儒,佛,道)로 인해 후대에도 유명인이었다. 단선적이지 않은 삶의 궤적이 시와 그림에 반영되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김시습의 자의식과 후대 사람들의 관점을 함께 엿볼 수 있다.